

# 김수홍(金壽弘)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배경 연구

---

이호(李好)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조선시대사 전공

hhhehu93@163.com

---

- I. 머리말
  - II. 16세기 중후반부터 활발해진 조선과 중국의 지도 교류
  - III. 서세동점 배경하 '형승도'의 변형과 조선 전래
  - IV. 17세기 중후반 조선 지식인의 사상체계와 지도 제작
  - V. 김수홍의 생애, 학문과 지도 제작
  - VI. 맺음말
-

## I. 머리말

---

김수홍이 1666년(현종 7)에 제작한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는 조선후기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직방세계(職方世界)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이다(그림1). 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중후반에 김양선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조선시대 제작된 중국식 세계지도 중의 ‘대명식(大明式) 천하도’ 부류로 규정하고, 지도 제작자인 김수홍의 인적 사항 그리고 지도의 윤곽, 지명, 주기, 발문 등을 간단히 소개했다.<sup>1</sup> 1970년대에 들어가며 한국 고지도 연구자는 대체로 김양선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이찬은 《천하고금대총편람도》가 중국식 세계지도에 서양의 근대 세계지도의 지식을 추가한 것으로 여겼다.<sup>2</sup> 영국인 매카이(A. L. Mackay)는 최초로 구미학계에 이 지도를 소개했다.<sup>3</sup>

그 후로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관한 연구는 간략한 내용 소개와 해설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게리 레저드(Gari Ledyard)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초로 명말 중국인 양주(梁輔)의 《건곤만국전도고금인물사적(乾坤萬國全圖古今人物事跡)》이 김홍수 지도의 참고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그림2).<sup>4</sup>

---

※ 논문의 수정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지도교수인 문중앙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감사드린다. 더불어 이 논문은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김준엽 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 1 김양선, 『韓國古地圖研究抄: 世界地圖』, 『梅山國學叢稿』(승전대학교 박물관, 1972), 223~225쪽.
- 2 이찬, 『韓國古地圖의 發達』, 한국도서관학연구회(편), 『韓國古地圖』(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7), 203~204쪽. 이찬의 『韓國의 古地圖』에 따르면, 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제작된 매우 유행한 ‘천하지도책’에 있는 ‘중국도’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찬, 『韓國의 古地圖』(과주: 범우사, 1991), 342~343쪽.
- 3 A. L. Mackay, “Kim Su-Hong and the Korean Cartographic Tradition,” *Imago Mundi*, Vol. 27, No. 1(1975), pp. 2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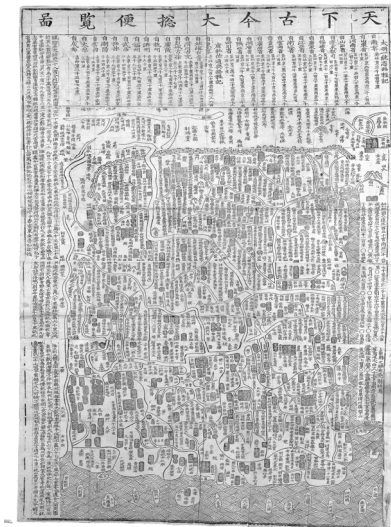


그림1-《천하고금대총판람도》,  
1666년, 서울역사박물관



그림2-《건곤만국전도고금인물사적》,  
1593년, 미상

2000년 이후 고지도 정리·영인 간행 사업의 활성화와 고지도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의 도입으로 인해 《천하고금대총판람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전했다. 배우성<sup>5</sup>, 오상학<sup>6</sup>, 임종태<sup>7</sup>, 그리고 양위레이(楊雨蕾)<sup>8</sup> 등 국내외

- 
- 4 Gari Ledyard, "Cartography in Korea," J. B. Harley and D. Woodward(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2, Book.2(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p. 267~269.
  - 5 배우성은 《천하고금대총판람도》에 담긴 조선후기 지식인의 세계관과 중화관 등 문제를 사상사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했다. 배우성, 「역사: 지도로 세상 읽기: 조선 선비 김수홍의 세상 보는 법」, 『선비문화』 제3권(2004), 8~15쪽; 배우성, 「조선후기의 異域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제36권 (2006), 145~177쪽; 배우성,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과주: 돌베개, 2014), 66~90쪽.
  - 6 오상학은 지리학적 관점으로 《천하고금대총판람도》의 제작 과정, 내용 구성, 그리고 그에 담겨 있는 세계 인식과 대(對)중국 인식을 검토했다.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對中國 認識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제5권(2005), 289~332쪽;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중화적 세계인식」,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제1호

학자는 해당 지도의 판본과 내용, 계보와 저본, 그리고 지도에 담긴 지리 인식 등을 연구해 왔다. 선배 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관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명·청 교체 직후의 시점에 나타난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한국 지도학사와 한국 사상사뿐만 아니라, 한·중 지도학 교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해당 지도의 제작 배경, 즉 그가 나타난 원인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만 명·청 교체가 조선 국내 사상계의 상황과 16세기 중후반 이래 한·중 양국 지도학 교류의 변화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제작 배경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선행 연구에는 대개 김수홍의 개인 상황,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의 전래 등에 방점을 두고 간단히 다루었다. 이 외에는 16·17세기 활발해진 조선과 중국의 지도 교류, 중국 ‘형승도’ 계통 세계지도의 변형과 유입, 명·청 교체 후 조선 사회 지식인의 사상체계와 지도 제작 그리고 제작자인 김수홍의 생애와 학문 등 시대적·개인적 배경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조선 국내외의 역사 배경과 김수홍의 개인 상황을 근거로 하여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제작 배경을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2009), 5~18쪽;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파주: 창비, 2011), 297~304쪽.

- 7 임종태는 동서 지리학·지도학 교류사의 시각에서, 중국 전통의 ‘화이도’와 명나라의 ‘형승도’를 살펴봤을 때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언급하고 이를 ‘형승도’ 계통의 지도로 분류했다. 임종태,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화』(파주: 창비, 2012), 134~136쪽.
- 8 양위레이는 서지학적 접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판본과 필사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 유전과 계보 관계를 검토했다. 양위레이, 「金壽弘의 《天下古今大摠便覽圖》板本 研究」, 『한국고지도연구』 제3권 제1호(2011), 5~17쪽.

## II. 16세기 중후반부터 활발해진 조선과 중국의 지도 교류

### 1. 명말 상업출판의 발달과 지도·지리서의 조선 전파

조선과 명나라의 서적 교류는 주로 조공·책봉 체계 안에서 전개되었다. 명 조정에서의 사입(賜入) 및 명나라 대신과의 교환 등 다른 방식이 있었지만, 사행(使行)에 의해서 중국의 서적을 구입하여 조선에 전파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었다. 명나라에서의 서적 유출을 금지한 조치가 때때로 있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대량의 책들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16세기 중후반 이전에는 이미 많은 중국의 지도·지리서가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1402년(태종 2) 여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sup>9</sup> 등이 있다.

16세기 중후반부터 명나라의 상업출판의 발달로 인해 조선으로 유입된 지도와 지리서의 양과 종류는 비교할 수 없이 급증했다.<sup>10</sup> 그 이유는 명나라

- 
- 9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청준의 《혼일강리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조선으로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은 없지만, 조선이 건국 초부터 중국에서 지도를 수집하고 획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오상학, 앞의 책(2011), 97~101쪽.
- 10 미국인 학자 알렉산더 에이킨(Alexander Akin)은 명말 출판의 붐(publishing boom), 동아시아의 지도 출판과 교류를 검토했다. 그는 『대명일통지』 《광여도》, 해방지도와 지리서, 유서, 역사지도집, 그리고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 등을 포함하여 명말 출판의 붐 속에서 지도 출판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반면 명말 지도의 출력이 조선의 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을 때, 그는 『대명일통지』와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 전래를 간단히 다루었다. 에이킨은 결론적으로 명말 지도 출판의 붐이 조선의 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명말뿐만 아니라 청나라 시기에 출판된 중국 지도는 끊임없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조선의 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경우, 명말 출판의 붐이라는 시대 배경이 없다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명말 지도 출판의 발달은 전제조건으로 꼼꼼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lexander Akin, *East Asian Cartographic Print Culture: The Late*

가정(嘉靖) 대 이래 민간에서 간행된 지도와 지리서가 대량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황지영은 명 대에 등장한 방각서(坊刻書)에 대해서 연대별, 종류별로 정리한 바 있으며, 그의 통계에 따르면, 1567년 융경제(隆慶帝) 즉위부터 1644년 숭정제(崇禎帝) 사망까지 77년 동안 사부(史部) 지리류(地理類) 서적으로는 20종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정 대 이전 197년 동안에 간행된 방각본 지리서는 단 4종에 불과했다.<sup>11</sup> 사실상 그의 방각서에 대한 통계는 단지 명말 지도·지리서 출판 붐의 일부분만을 반영했으며, 낱장의 지도, 지도책, 그리고 지도를 수록한 유서(類書) 등 다른 지도 관련 출판물은 지리류 서적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정 대 이후 명나라의 지도·지리서 출판, 그리고 조선 전과의 상황을 도서의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각종 지도를 수록한 유서이다. 유서는 여러 책들의 내용을 채택해서 내용이나 항목별로 정리·편찬된 책으로, 현재의 백과사전과 유사하다. 명말에는 유서의 편찬이 번성기에 이르렀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는 17세기 초에 출간된 왕기(王圻)·왕사의(王思義) 부자의 『삼재도회(三才圖會)』와 장항(章潢)의 『도서편(圖書編)』이다. 이 책들에서는 당시 민간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도를 망라해 수록했다.<sup>12</sup> 『삼재도회』와 『도서편』에서는 전통적 중국식 지도뿐만 아니라 마테오 리치 등 연수회사(耶蘇會士)에 의해서 중국에 전래된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까지 수록했다. 이들 유서를

---

*Ming Publishing Boom and its Trans-Regional Connections*(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1), pp. 213~220.

11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과』(과주: 시간의물레, 2012), 40쪽.  
 12 『삼재도회』에 실려 있는 지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王逸明, 『1609中國古地圖集: 「三才圖會·地理卷」導讀』(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10); 김지선, 「17세기 중국의 과학과 『三才圖會』(I): 과학서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54권 (2016), 35~61쪽; 俞昕雯, 「『三才圖會·地理類』圖譜源流考」, 『中國典籍與文化』 2021-1(2021), 41~52쪽.

통해서 당시 중국 지도학 발전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과 세계에 관한 새로운 지리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삼재도회』의 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하여 후자가 일찍 명말에 유입되었음을 반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는 『삼재도회』가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자주 사용된 학문 참고서로 자리 잡았다.<sup>13</sup> 마찬가지로 박세채(朴世采)가 쓴 『범학전편(範學全編)』의 서문에서는 장황과 『도서편』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적어도 『범학전편』이 출간된 1684년(숙종 10) 이전에 『도서편』이 조선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17세기에 활동한 김수홍이 이들 유서를 접하고 책에 수록된 지도와 지리 지식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지도와 노정기를 수록한 일용유서(日用類書)이다. 소위 일용유서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전형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용유서는 명말에 출간된 일련의 책들인 『만보전서(萬寶全書)』와 함께 등장했다.<sup>15</sup> 『명대통속일용유서집간(明代通俗日用類書集刊)』에는 명나라에 출판된 일용유서 44종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중 가정 대 이전에 나타난 것은 단 2종뿐이었다.<sup>16</sup> 이는 명말 일용유서 출판의 대성황을 잘 반영한다.

---

13 이수광과 다른 조선 지식인의 『삼재도회』에 대한 수용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고인덕, 「조선시대에 있어서 도설백과사전 『三才圖會』의 수용」, 『중국어문학논집』 제77권(2012), 607~625쪽.

14 박세채, 『南溪集』(66) 「範學全編序」.

15 일용유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吳蕙芳, 『萬寶全書: 明清時期的民間生活實錄』(臺北: 稻鄉出版社, 2001); 酒井忠夫, 『中國日用類書史の研究』(東京: 株式會社國書刊行會, 2011).

16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文化室(編), 『明代通俗日用類書集刊』(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또한 당시 시민사회와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인구이동과 상업 활동이 매우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행정구역, 도로, 교통, 노정 등 지리 정보는 매우 필요한 지식으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일용유서에서는 풍부한 지리 정보를 수록한 「지여문(地輿門)」이나 「지리문(地理門)」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sup>17</sup>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발문에서는 『만보전서』를 직접 언급하여 그중의 거리 정보를 인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했을 때 명말의 일용유서를 참고하고 활용했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로는 나홍선(羅洪先)의 《광여도(廣輿圖)》와 그 계통의 지도이다. 1541년(중종 36)에 발행된 초판 《광여도》는 명나라 가정 연간의 지도학자인 나홍선이 원나라 주사본(朱思本)의 《여지도(輿地圖)》를 기반으로 하여, 당시 다른 지도를 참고하여 수정을 가하고 제작된 대형 종합 지도집이다. 이 지도집은 후대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 중국 지도학사에서 엄연한 하나의 '경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18</sup> 일본인 학자 운노 가즈타카(海野一隆)의 조사에 따르면, 명말 《광여도》에 영향을 받아 출간된 지도와 지리서는 총 35종에 달한다.<sup>19</sup>

《광여도》가 조선으로 전래된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해당 계통의 지도가 일찍 유입되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재도회』와 『도서편』에서는 대량으로 《광여도》 계통의 지도를 복제·인용했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 만주와 몽골 지역에 등장한 “자경주지개평천리송림(自慶州)

17 최수경, 「明代 後期 출판을 통한 지리학적 지식의 전파와 그 의미: 福建版 日用類書의 『地輿門』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69권(2015), 269~311쪽; 王勇, 「論明代日用類書中的指南性交通史料」, 『宜賓學院學報』 2018-8(2018), 70~79쪽.

18 王庸, 『中國地圖史綱』(上海: 商務印書館, 1959), 63~71쪽; 조셉 니덤(저), 이면우(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서울: 까치글방, 2000), 309~313쪽.

19 海野一隆, 『地圖文化史上の廣輿圖』(東京: 東洋文庫, 2010), 226~227쪽.

至開平千里松林)”, “위로진명태종북정남망북두(威虜鎮明太宗北征南望北斗)” 등 주기는 ‘형승도’에서 찾아질 수 없고, 도리어 《광여도》 식막도(朔漠圖)에서 거의 똑같은 표현이 발견된다. 이를 통해 김수홍이 《광여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는 낱장 지도로서의 ‘형승도’ 계통의 지도와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형승도’ 계통의 지도는 16세기 중반에 등장한 매우 흥미로운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이다. ‘형승도’에서는 중국과 주변국·주변 세력의 행적구역, 산천, 인물, 전고, 사건, 명승 등을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다. 해당 유형의 지도는 송 대의 ‘화이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때때로 ‘화이도’ 계통의 지도로 분류되기도 한다(그림3). 16세기 말 중국에 들어간 서구 선교사가 근대 세계지도를 제작한 이후, 전통적 ‘형승도’는 그 영향을 받아 일정하게 변형되었다. 명말청초에는 다양한 형태의 ‘형승도’가 등장했으며,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이 유형의 지도에 속한다는 것이 학계 통설로 받아들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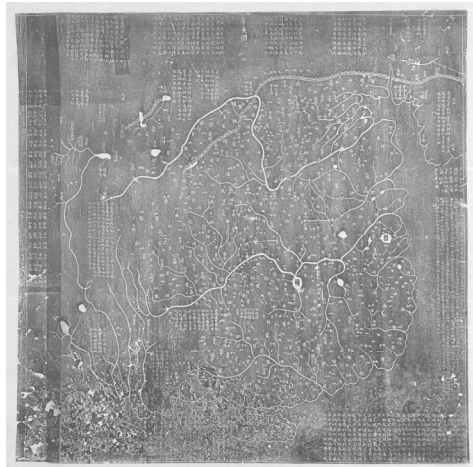


그림3-《화이도》, 1136년, 미국 국회도서관

## 2. 양대 전란과 활발해진 조선과 명·청 지도 교류의 변화상

16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중국의 상업적 출판은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도 급격하게 변동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왜란과 호란 양대 전란의 고통을 겪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 소장되어 있던 많은 지도와 지리서가 소실되었다. 중국 또한 17세기 중반에 왕조의 교체기를 맞이했다. 17세기 전반에는 만주 지역에서 누르하치(努爾哈赤)와 홍타이지(皇太極) 등에 의해 만주족 정권 후금, 즉 뒤의 청나라가 일어났으며 명나라와 중원의 패권을 다투었다. 마침내 1644년에 청나라가 입관하여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점령하며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조선과 중국, 즉 조선과 명·청의 지도 교류가 오히려 전기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우선 임진왜란 시기 지도 교류의 양상을 살펴보자.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선조 31)까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명나라는 조선의 요청에 따라 수만 명의 원군을 파견하여 참전했다. 조선군과 함께 전장에 나간 명군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쟁 현장인 조선의 지리적 상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 국내 각 전장 정밀지도의 제작이 시급한 일이 되었다. 당시 명군은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직접 사용한 때도 있었으며, 현지답사를 통해 일부 지역을 조사하고 명군 중의 화원(畫員)이 지도를 만들고 사용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조선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해동제국기』 등 지리서 및 책 중의 부도(附圖)가 명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일본군까지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sup>20</sup>

---

20 허태구, 「임진왜란과 지도·지리지의 군사적 활용」, 『사학연구』 제113권(2014), 167~198쪽.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동람도’는 이 시기에 명군에 의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명군 제독(提督) 총병관(摠兵官) 이승훈(李承勳)은 1600년(선조 33)에 <동람도>를 바탕으로 하여 목판본 지도책 『조선도설(朝鮮圖說)』을 발행했다(그림4). 이승훈의 『조선도설』은 정약중(鄭若曾)이 가정 연간에 제작한 동명의 조선지도책 및 나홍선 《광여도》에 있는 <조선도>(그림5)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르며, 현저하게 조선에서 제작된 ‘동람도’의 영향을 받아 거의 그대로 수용된 결과물이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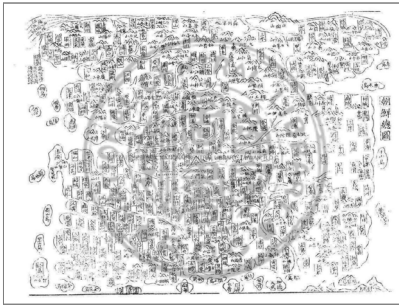


그림4-〈조선총도〉, 1600년,  
대만국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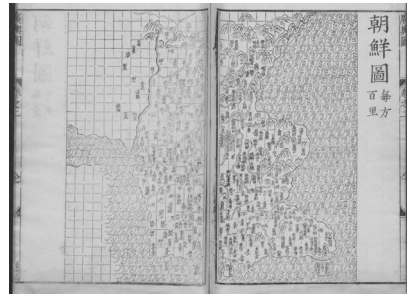


그림5-〈조선도〉, 1541년,  
미국 하버드 엔칭 도서관

다음으로는 임진왜란 직후 지도 교류 변화상을 검토해보자.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침략은 일단락되었으나 후금·청은 만주에서 흥기하며 1627년(인조 5)과 1636년(인조 14)에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두 차례의 남침을 도발했다. 이들 전쟁으로 인해 조선 국내에 있던 서적이 더욱 많이 산실되었다. 조선은 거의 없어진 지도·지리서를 보충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지도를 수집·매입하는 데 전보다 더욱 힘썼다. 명말청초에 활약한 중국인 문인 강소서(姜紹書)는 『운석재필담(韻石齋筆談)』에서 당시 조선

21 Alexander Akin, *op. cit.*(2021), pp. 213~220.

사신의 서책 구매 열정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했다.

조선인들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무릇 사신으로 오륙십 명씩 파견되어 오면 그중 어떤 이는 구전(舊傳)과 신서(新書)를 구하고 어떤 이는 폐관소설(釋官小說)을 찾았는데, 그곳에 없는 것은 해가 뜨면 저자로 나가 각기 서목(書目)을 필사하고, 사람을 만나면 두루 물어서 비싼 가격에도 개의치 않고 구입해 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오히려 이서(異書)들이 소장되어 있다.<sup>22</sup>

이 시기에는 많은 중국의 지도와 지리서가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본 〈여지도(輿地圖)〉는 1594년(선조 27)에 왕반(王泮)이 지문(識文)을 쓰고 백군가(白君可)가 8쪽의 목판으로 간행한 중국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조선인 제작자의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천하여지도〉 1본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난리를 겪고 난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 8쪽으로 인쇄되어 나온 「여지도」를 입수했는데, 산음(山陰)의 왕반(王泮)이 지(識)를 쓴 것이다. ... 중국을 지도로 그려서 편람하게 하는 일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sup>23</sup>

이 가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국내에 천하지도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선 지식인이 최신의 중국 지도를 빠르게 입수하여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는 열정을 잘 보여준다.<sup>24</sup>

---

22 姜紹書, 『韻石齋筆談』(上) 「朝鮮人好書」.

23 발문은 한영우의 번역문을 참조했다. 한영우,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본여지도」, 한영우·안희준·배우성(편),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과주: 효형출판, 1999), 266~267쪽.

또 다른 사례로는 명말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 전래이다. 1603년(선조 36)에 북경에 파견된 고명주청사(誥命奏請使) 이광정(李光庭)과 부사 권희(權愾)에 의해 1602년에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가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이것은 서구식 세계지도가 조선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록이다. 이후에는 조선 사신 허균(許筠), 황중윤(黃中允), 정두원(鄭斗源) 등은 마테오 리치의 다른 지도, <양의현람도(兩儀玄覽圖)>, <만리전도(萬里全圖)> 5폭 등을 조선으로 가져왔다.<sup>25</sup> 또한 윗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 시기에 전해진 『삼재도회』와 『도서편』 등 유서에는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가 실려 있다. 이것은 또 다른 경로로서 서구 세계지도가 조선으로 유입된 사례이다.

### Ⅲ. 서세동점 배경하 ‘형승도’의 변형과 조선 전래

#### 1.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의 유입과 ‘형승도’의 변형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형승도’는 1555년에 나온 유시의 <고금형승지도>이다. 이 지도의 묘사 방식을 살펴보면 <고금형승지도>는 명나라 민간에서 유행한 행정구역을 반영한 1536년(중종 31)의 <황명일통

24 대만 고궁박물관에서는 <북양해안도>라는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만주어로 된 지명과 함께 한자로도 표기되어 있어 후금 혹은 청 조정이 조선의 지도를 입수하여 수정한 사실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명말청초 한·중 양국 활발한 지도 교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출발 단계에 있으며, 2018년 중국 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쑤징궈(孫靖國)가 지도의 내용과 지도학적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 현재까지 유일한 연구 성과이다. 孫靖國, 「台北故宮藏滿漢文『王洋題識「輿地圖」朝鮮摹繪增補本』考釋: 兼論清代地圖史的開端」(2018年中國歷史地理學術研討會, 北京: 中國人民大學, 2018).

25 서구식 세계지도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 오상학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오상학, 앞의 책(2011), 171~173쪽.

지리지도(皇明一統地理之圖), 1631년(인조 9)의 <황명여지지도(皇明輿地之圖)>와 같이 모두 송 대의 <화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해도 무방하다.<sup>26</sup> 궁잉옌(龔纓晏)의 ‘화이도’ 계통 지도에 관한 서술에 따르면, “동쪽과 남쪽은 모두 바다이고, 북쪽은 광야이며, 중국은 중심부에서 유일하게 과장으로 배치되고, 사이(四夷)는 중국의 주변에 간단하게 나열되었다.”라는 것이 이들 지도의 특징이다.<sup>27</sup>

초기 ‘형승도’인 <고금형승지도>는 동 시기에 제작된 다른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다. 첫째, <황명일통지리지도>는 당시의 행정구역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반면, <고금형승지도>는 역사 인물, 사건, 전고, 명승 등에 관한 810여 개의 주기가 있어서 독사용(讀史用) 지도의 특징이 뚜렷하다. 둘째, <고금형승지도>에는 주변국과 주변 세력에 대한 설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지도보다 ‘형승도’가 주변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16세기 말, 서구 선교사가 근대 세계지도와 세계 지리 지식을 중국에

26 청이농(成一農)의 연구에 따르면, ‘형승도’ 계통의 지도는 ‘대명일통도’를 저본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형승도’ 계통 지도에서 2개의 조롱박 모양으로 표현된 ‘황하원(黃河源)’과 ‘성숙해(星宿海)’, 그리고 과장하게 묘사된 동정호(洞庭湖)와 파양호(鄱陽湖), 사천성 ‘성도부(成都府)’ 양측에 있는 한강(漢江)과 장강(長江)의 발원지를 표시한 것 등을 기반으로, ‘형승도’ 계통의 지도가 계악(桂嶠)의 『廣輿圖說』 ‘대명일통도’ 계열 중의 ‘여지총도’를 원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주장했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일부 동의하지만 많은 의문이 있다. 첫째, 지도 도명상의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보면 유시의 <고금형승지도>와 ‘여지총도’ 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둘째, 다른 시기에 제작된 ‘형승도’는 각각의 차이가 있으며, ‘여지총도’와 비교하기 어렵다. 셋째, 지도의 크기에 비교해보면 대형 낱장 지도로서의 ‘형승도’는 지도책 부도 형태의 ‘여지총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황명일통지리지도>나 <황명여지지도>는 ‘여지총도’보다 ‘형승도’ 계통 지도의 초기 작품으로서의 <고금형승지도>와의 계보 관계를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成一農, 『“古今形勝之圖”系列地圖研究: 從知識史角度的解讀』, 『形象史學』 2021-1(2020), 256~284쪽.

27 龔纓晏, 『中國古代單幅“天下圖”演變譜系』, 『中國社會科學』 2023-2(2023), 140~164쪽.

소개한 이후로부터, ‘형승도’ 계통의 지도는 기존의 ‘화이도’를 넘어서 새로운 지도학적 특징을 갖추게 되기 시작했다. 중국에 들어간 예수회사 마테오 리치는 1584년(선조 17)에 광둥(廣東) 조경(肇慶)에서 중국 최초의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 <산해여지전도(山海輿地全圖)>를 만들었다. 그 후로부터 1608년(선조 41)까지 마테오 리치는 <세계도지(世界圖志)>, <곤여만국전도> 등 세계지도·지리서를 제작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다른 선교사도 서구식 세계지도를 제작했다. 예를 들면, 알레니는 1623년(광해군 15)에 <직방외기(職方外紀)>와 <만국전도(萬國全圖)>를 간행했다.<sup>28</sup>

이러한 팽배한 서세동점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승도’의 제작자도 자연스럽게 참신한 서구 세계지도와 지리 지식의 영향을 받았다. 전통을 고수하며 새로운 세계 지리 지식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형승도’가 계속 출간되었지만, 일부 지도 제작자는 서구의 세계 지리 지식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형승도’를 창조했다.

이들 새로운 ‘형승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도의 이름은 매우 길고 다양한 용어로 배열되어 구성되었으며, “황명(皇明)”, “천하(天下)”, “구주(九州)”, “구변(九邊)”, “건곤(乾坤)”, “만국(萬國)”, “분야(分野)”, “고금(古今)”, “인물(人物)”, “노정(路程)”, “사적(事跡)”, “여도(輿圖)”, “전도(全圖)”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새 ‘형승도’의 명칭 중에는 이전의 지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한 용어가 많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도에서 자주 나타난 “일통(一統)”, “혼일(混一)”, “여지(輿地)”, “지리(地理)” 등의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용어의 취사선택은 ‘형승도’ 계통 지도의 제작자가 이전보다 더욱 넓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반영했다.

28 명말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 지식의 중국 전래에 관해서는 다음 저술을 참조할 수 있다. 오상학, 앞의 책(2011), 153~170쪽.

둘째로, 변형된 ‘형승도’에 그려진 세계 윤곽은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 ‘형승도’와는 달리 새로운 ‘형승도’에서는 중원대륙의 북쪽과 서쪽에 바다가 처음으로 그려졌다. 동시에 일부 ‘형승도’에서는 알레니의 《만국전도》와 나홍선 《광여도》 중의 〈동남해이도(東南海夷圖)〉와 〈서남해이도(西南海夷圖)〉의 영향을 받아 이전에 볼 수 없던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신대륙 등 많은 구역을 묘사했다. ‘형승도’의 신대륙에 대한 묘사가 서구식 세계지도보다 크게 변형되었지만, 이는 ‘화이도’의 지도학 전통을 벗어나고 최신의 세계 지리 지식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소장 기관에서는 명말청초에 제작된 전통적이거나 변형된 ‘형승도’ 계통의 지도가 약 16종이 발굴되었다. 이들 ‘형승도’는 근대 세계지도와 지리 지식의 수용·변용 정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29</sup> 첫째로, A형인 전통형은 지도에서 새롭게 유입된 서구 지리 지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직방세계만을 그린 부류다(그림 6). 둘째로, B형인 수정형은 지도의 중앙부에서 과장하게 그려진 중원대륙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단지 북해(北海)와 서해(西海)를 추가 묘사한 부류다. B형에서는 세계에 대한 묘사가 약간 수정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29 ‘형승도’의 분류에는 청이농,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과 리우야웨이(劉亞惟)가 각각의 분류법을 제시했다. 청이농은 지도에 있는 내용과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1형은 지도 주위에 텍스트가 없는 유형, 2형은 묘사된 세계의 범위가 넓혀지며 지도 하단에 텍스트를 추가한 유형, 3형은 세계의 범위가 더욱 넓혀지며 지도의 좌우 양측에 텍스트를 추가한 유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티모시 브룩은 중원대륙 주변 대양의 수를 기준으로, 양대양형(兩大洋型), 삼대양형(三大洋型)과 사대양형(四大洋型)으로 구분했다. 리우야웨이는 이들 지도에 있는 역외 지식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변형(九邊型), 사해오주형(四海五洲型), 그리고 사해도이형(四海島夷型)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필자는 주로 리우야웨이의 분류법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成一農, 앞의 논문(2020), 256~284쪽; Timothy Brook, *Completing the Map of the World: Cartographic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Europe*(Taipei: Institute for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2020), p. 172; 劉亞惟, 「以夏變夷: 晚明“天下全圖”的域外知識來源與製圖觀」, 『嶺南學報』 2022-16(2022), 253~291쪽.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사해(四海)에는 서구식 세계지도에 있는 많은 나라가 도서(島嶼)의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그림2). 셋째로, C형인 급변형은 중원대륙 이외의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신대륙을 모두 상세히 묘사하고, 새로운 세계 지리 지식을 많이 수록한 부류이다(그림7). <표1>은 김수홍의 지도 이외의 다른 ‘형승도’ 계통의 지도를 수집·정리한 것이다.

표1-명말청초 세 가지 유형의 ‘형승도’ 계통의 지도

유형	순번	지도명	소장처	제작자	제작 시기와 제작지	형태	비고
A형 (전통형)	1	《備志皇明一統形勢分野人物出處全覽》	크라쿠프 국립박물관	詹懋忠·李伯可	1605 북건	날장지도 (목판본)	주기가 지도의 주위에 적힘
	2	『圖書編』〈古今天下形勝之圖〉		章潢	1613	삽도 (목판본)	《고금형승지도》와 매우 유사함
	3	《皇明職方地圖》 〈皇明大一統地圖〉		陳淅綬	1635	삽도 (목판본)	《고금형승지도》와 매우 유사함
	4	《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하버드 연칭 도서관	季明臺	1643 남경	날장지도 (목판본)	최초로 지도의 주위에 많은 텍스트가 추가됨
	5	『地圖綜要』〈華夷古今形勝圖〉		朱紹本·吳學儼	1645	삽도 (목판본)	《고금형승지도》와 매우 유사함
	6	《歷代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고베시립 박물관	呂君翰	1679 북경	날장지도 (목판본)	4번 지도를 저본으로 참조할 가능성이 있음
	7	《中國圖》	고베시립 박물관	寺島良安	1727 일본	날장지도 (필사본)	《和漢三才圖會》를 참조함
	8	《歷代分野之圖古今人物事跡》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도서관	桂川甫三	1750 일본	날장지도 (목판본)	6번 지도를 저본으로 번각함
	9	《九州分野輿圖古今人物事蹟》	캐나다 UBC 아시아도서관	季名臺	계미 남경	날장지도 (목판본)	4번 지도를 저본으로 참조할 가능성이 있음
	10	《大明地圖》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미상	미상 일본	날장지도 (필사본)	19세기 후반 이전 일본에서 성행함

유형	순번	지도명	소장처	제작자	제작 시기와 제작지	형태	비고
B형 (수정형)	11	《乾坤萬國全圖古今人物事跡》	미상	梁翰	1593 (존의) 남경	날장지도 (목판본)	서해가 그려지지 않으며 문자로 표시됨
	12	‘乾隆今古輿地圖’ (가제)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 도서관	미상	건륭 초 (추정)	날장지도 (목판본)	11번 지도와 매우 유사함
	13	‘the White Map’ (무제, 가제)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 도서관	미상	17세기 (추정)	날장지도 (목판본)	매우 간략하며 사해가 문자로 표시됨
C형 (급변형)	14	《天下九邊分野人跡路程全圖》	영국 국립 도서관	曹君義	1644 남경	날장지도 (목판본)	경위선이 있음
	15	《天下九邊萬國人跡路程全圖》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도서관	王君甫	1663 소주	날장지도 (목판본)	14번 지도를 전본으로 번각함
	16	《大明九邊萬國人跡路程全圖》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梅村彌白	17세기 말 18세기 초 (추정) 일본	날장지도 (목판본)	15번 지도를 저본으로 번각함



그림6-《황명분야여도금인물사적》,  
1643년, 허버드 엔칭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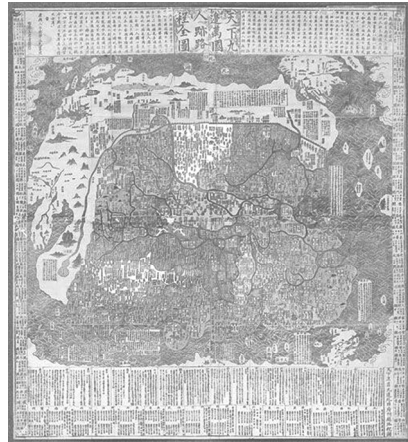


그림7-《천하구변만국인적노정전도》,  
1663년,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도서관

## 2. ‘형승도’ 계통 지도의 조선 전래 과정

현재 일본과 서양에는 여러 종류의 ‘형승도’ 계통 지도 원본과 번각본이 보존되어 있으며, 해당 지도의 전래 과정과 관련된 문헌 기록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로 유입된 ‘형승도’의 종류, 수량 및 전파 과정 등을 명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전래 과정에 관한 역사 기록이 부족하여 ‘형승도’ 계통 지도의 조선 전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도 다음 가지 사례나 기사를 통해 ‘형승도’의 전래 과정과 경로를 더 자세히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현재 한국 국내에 소장된 ‘형승도’ 계통 낱장지도의 상황을 살펴보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는 《천하구변만국인적노정전도》 한 장이 소장되어 있으며,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각각 《대명구변만국인적노정전도》 한 폭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도가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경로로 조선에 전해 내려왔는지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지도가 김수홍의 시대인 17세기에 조선에 유입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후에 전래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이들 지도가 모두 조선에 일찍 전해져 온 것으로 가정하고 김수홍 지도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전자의 경우, 일본에서 17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666년에 만들어진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1663년과 1666년 사이에 조선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할 때 이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있는 ‘형승도’ 계통 지도 소장품의 상황을 살펴보면, 김수홍이 《대명구변만국인적노정전도》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증 자료가 없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형승도’ 계통 지도의 소장 현황을 통해 그의 전래 과정을 정확히 복원할 수는 없지만, 다음 두 가지 기사에 의하면, 17세기 중후반에 ‘형승도’가 이미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1677년(숙종 3) 신행건(愼行建)이 진술하길, “천하지도가 예로부터 유전하였으며, 혹은 병풍, 족자(簇子), 그림첩, 책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노정의 원근을 알기 위해서 이를 가지고 떠났다. 이 모사(摹寫)한 종이는 우리나라의 물건으로 검사·확인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30</sup>

나) 1711년(숙종 37) 청평이 묻기를, “대서양은 서역(西域)에 있는 나라 이름이지만, 유럽·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니, 백석이 말하기를, “귀국에는 만국전도가 있습니까?” 하였다. 남강이 대답하기를, “고본(古本)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고 하였다.<sup>31</sup>

가)는 1677년에 귀국 중인 조선 사신단이 소지한 청나라의 금지품인 지도가 봉성장경(鳳城章京)에 의해 색출된 사건에 대한 장본인의 답변이다.<sup>32</sup> 이 기사에 등장한 지도는 ‘형승도’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로, 해당 지도의 명칭에 “천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형승도’ 계통 지도의 표제에서 자주 나타난 것이다. 둘째로, 이 지도는 중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 노정의 원근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형승도’에는 상세한 중국의 노정기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도가 ‘형승도’일 가능성이 커졌다.

30 『通文館志』(9) 肅宗 3년(1677).

31 『東槎日記』 「江關筆談」.

32 『肅宗實錄』 3년(1677) 3월 18일, “冬至正使吳挺緯 副使金禹錫 書狀官俞夏謙還自燕”.

셋째로, 해당 지도는 다양한 장정(裝幀)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어서, 이 지도의 크기가 작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형승도’의 특징인 화면(畫面)이 넓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나)는 1711년에 조선 사신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대신과 『만국지도』에 관한 대화이다. 이 이야기에서 일본 대신은 조선 사신이 서구 여러 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만국전도』를 제기했고, 조선 사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본 지도에는 이들 나라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여기에 등장한 만국지도는 분명히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이다. 이 『만국전도』와 비교해보면, 조선 사람이 언급한 지도에는 서구의 나라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지도는 서구 지리 지식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 ‘형승도’와 매우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전술했듯이 유서의 조선 전래에 의해 조선 지식인은 유서에 실려 있는 지도인 소형 ‘형승도’를 접할 기회를 얻었다. 정리해보면 16세기 중후반부터 조선에 들어온 ‘형승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수량은 확실히 파악될 수 없지만, 이 부류의 지도가 17세기 중반 이후에 많이 유입되어 조선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은 역사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7세기에 활약한 김수홍이 ‘형승도’를 읽고 자신의 지도 제작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IV. 17세기 중후반 조선 지식인의 사상체계와 지도 제작

##### 1. 명·청 교체와 서세동점과 조선 사상계

17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곧 명·청

왕조 교체였다.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 후금, 즉 청은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시키고 새로운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했다. 화이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조선 지식인은 양차의 호란을 겪었고, 명나라를 중화 문명의 화신으로 존송하고 오랑캐 청나라를 배척하는 존명배청(尊明排淸) 인식이 형성되었다. 17세기 중후반에는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대명의리론과 북벌론이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풍미했다.

또한, 명·청 교체 이외에는 16세기 후반에 동양으로 유입된 서양의 문물은 동아사아 역사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서세동점의 시대적 물결은 조선 사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리학을 신봉한 조선 지식인은 서구 지식과 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학을 응대했다. 다음으로, 대명의리론, 북벌론과 서학의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17세기 중후반 조선 지식인 사상체계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명·청의 왕조 교체 이후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 대명의리론은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더욱 유행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파견하여 망해지게 된 조선을 구해주었다. 이러한 까닭에 재조지은을 입은 조선에서는 이 시기로부터 명나라에 대한 감격(感激)과 숭경(崇敬)의 마음이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양차의 호란을 겪은 조선은 천조인 명나라의 멸망을 목도하더라도, 여전히 명나라를 영구불변한 중국의 주인으로 여겼으며 그와의 의리를 지켜왔다. 이른바 대명의리론은 시기에 따라 변형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둘째로, 숭명과 반청은 동전의 양면이며, 효종 대에 접어들면서 오랑캐 청을 정벌한 북벌론은 고조되었다. 1644년에 청나라가 북경에 입관하면서 중국의 새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조선인은 여전히 청에 대한 굴욕감과 적대심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늘어났다. 특히 심양에서 몇 년 동안

인질로 살았던 봉림대군이 조선에 돌아와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조정에서 청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을 예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취했다. 이러한 고조된 북벌론은 현종, 숙종 대에 이르러 약간 약화했으나, 청에 대한 적대감은 18세기 말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셋째로, 서학은 서구 선교사에 의해 동양으로 유입되었으며, 조선 지식인은 그의 전래를 많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구설(地球說), 천문 측량, 그리고 서구식 세계지도 등과 같은 서학은 17세기 초에 조선으로 전파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경에 다녀온 조선 사신은 명나라에서 서구 선교사의 세계지도를 조선으로 가져왔다. 17세기 중후반부터는 김만중(金萬重)과 같은 소수의 조선 지식인이 서양의 천문지리학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 국내에서 서학을 접해도 관심을 하나도 두지 않고 역시나 전통적 천지관과 세계관을 고수한 학자는 여전히 많았다.<sup>33</sup> 조선 지식인이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서양 지리학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변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일이었다.

## 2. 17세기 중후반 조선 지도 제작의 변화

17세기 중후반 조선 지식인 사상체계의 변화는 지도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조선후기에 유행한 ‘천하지도책’ 중의 〈중국도〉는 승명반청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는 실제로 명나라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역사지도이며, 지도 도면상에서는 새 왕조인 청나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서양에서 유입된 서구식 세계지도와 세계지리 지식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지식인은 조선식의 원형 천하도를 제작했

---

33 임종태, 「서구 지리학에 대한 동아시아 세계지리 전통의 반응: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경우」,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2004), 315~344쪽.

다. 이 시기에 등장한 <중국도>와 원형 천하도는 '천하지도책'의 일부로 19세기 말까지 계속 조선 민간에서 널리 유행했다. 김수홍은 17세기 중후반 조선에서 활약한 지식인으로, 비슷한 사상체계의 변화를 겪었으며, 당대 다른 지도 제작으로부터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천하도>에서는 황하 서북 편과 중원대륙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명칭과 그의 지리적 배치가 유사한 점이 이었다. 두 가지 지도는 서로 다른 지리적 범위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중원대륙의 서북쪽에서 한당(漢唐) 대 지리지에서 등장한 서역의 나라를 나열했으며, 중원대륙의 주변에서 『산해경』에 있는 신화·전설의 나라를 배치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김수홍이 <천하도>의 제작자와 비슷한 이역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천하도>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양자간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중국도>의 높은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에서 나타난 명나라 십삼성(十三省)의 행정구역과 각 성도에서 북경까지의 거리,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 「우공(禹貢)」 편의 구주, 중국 주변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산천 등에 대한 묘사는 거의 모두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도>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축약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중원대륙 윤곽에 대한 다른 묘사 방식과 흑수(黑水)의 유무<sup>34</sup> 등에서 두 가지 지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7세기 중후반에는 조선 정부가 제작한 세계지도, 관방지도, 군현지도

---

34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사해총도』 「중원십삼성지도」와 같은 「중국도」에서는 흑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옛지도 속의 하늘과 땅』(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126쪽.

등도 많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1673년(현종 14)에 함경감사(咸鏡監司) 남구만(南九萬)이 방안식(方眼式) 관방지도와 군현지도를 제작했으며<sup>35</sup>, 1674년(현종 15) 7월에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김만중이 《천하지도》를 고증해 제작했다.<sup>36</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17세기 중후반에는 급변한 국제 질서에 발맞춰 조선 관부와 민간의 지도 제작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당시 관찬지도와 사찬지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명확해 보인다.

## V. 김수홍의 생애, 학문과 지도 제작

### 1. 김수홍의 생애

지금까지의 김수홍의 생애에 관한 서술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소략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기해예송과 송시열 사이의 대립 등 사건 이외에는 김수홍의 관직 이동이나 학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표2>에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자료를 참고하여 김수홍의 일생을 연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35 南九萬, 『藥泉集』(4) 「陳北道三事仍進地圖疏」; 南九萬, 『藥泉集』(28) 「咸鏡道地圖記」.

36 『顯宗實錄』 15년(1674) 7월 11일, “弘文館進天下地圖”.

표2- 김수홍 연표

단계	연도	활동 사항
1단계	1601년(선조 34)	출생
	1624년(인조 2)	갑자 식년시 진사 삼등이 되었음
	1636년(인조 14)	앞장서서 태학생과 함께 후금 사신 龍骨大를 참살하고 國書를 소각하라는 상소를 올렸음
	1637년(인조 15)	點考에 빠진 일 때문에 推考를 당할 뻔했음
	1643년(인조 21)	內侍敎官(종9품)으로 임명됨
	1646년(인조 24)	氷庫別檢(종8품)으로 임명됨
	1648년(인조 26) 1월	宗簿主簿(종6품)로 임명됨
	1648년(인조 26) 9월	衛從司長史(종6품)로 임명됨
	1649년(효종 즉)	戶曹佐郎(정6품)으로 임명됨
	1650년(효종 1)	通津縣監(종6품)으로 임명됨
	1650~1656년(효종 1~7) 사이	왕자 묘산의 보호에 관해서 宗親府에게서 탄핵을 받았으나 처벌받지 않았음
	1656년(효종 7) 1월	刑曹正郎(정5품)으로 임명됨
	1656년(효종 7) 윤5월	天安郡守(종4품)로 임명됨
	1656년(효종 7) 7월	副司果(종6품)로 임명됨
	1658년(효종 9)	楊根郡守(종4품)로 임명됨
	1659년(효종 10) 1월	戶曹正郎(정5품)으로 임명됨
	1659년(현종 즉) 6월 5일	掌樂僉正(종4품)으로 임명됨
	1659년(현종 즉) 6월 21일	平山府使(종3품)로 임명됨
	1659년(현종 즉) 7월 20일	繕工僉正(종4품)으로 임명됨
	1659년(현종 즉) 12월 26일	麻田郡守(종4품)로 임명됨
1665년(현종 6)	工曹正郎(정5품)으로 임명됨	
2단계	1666년(현종 7) 2월	서인이지만 기해예송에 관해서 송시열에게 남인의 주장을 지지하고 송시열의 설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로 인해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사판에서 삭제됨
	1666년(현종 7) 中春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했음
	1670~1671년(현종 11~12)	경신대기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음
	1673년(현종 14) 맹하	《朝鮮八道古今總攬圖》를 제작했음

단계	연도	활동 사항
3단계	1674년(숙종 즉) 11월	숙종 즉위와 갑인환국으로 인해 掌書(정4품)으로 제수되어 벼슬길에 다시 나갔음
	1675년(숙종 1) 5월	敦寧都正(정3품)으로 임명됨
	1675년(숙종 1) 7월 5일	工曹參議(정3품)로 임명됨
	1675년(숙종 1) 7월 13일	同副承旨(정3품)로 임명됨
	1675년(숙종 1) 7월 27일	右副承旨(정3품)로 임명됨
	1675년(숙종 1) 12월 12일	左副承旨(정3품)로 임명됨
	1675년(숙종 1) 12월 16일	右尹(종2품)으로 임명됨
	1676년(숙종 2) 1월	戶曹參判(종2품)으로 임명됨
	1677년(숙종 3) 1월	知事(정2품)로 임명됨
	1677년(숙종 3) 1월	예송 때에 올바른 길을 지킨 사람으로 계급을 뛰어 資憲大夫(정2품)로 올렸음
	1680년(숙종 6) 3월	知敦寧(정2품)으로 임명됨
	1681년(숙종 7)	사망
	1689년(숙종 10) 계동	청도 선암에서 《천하고금대총편람도》가 중간됨

〈표2〉의 연표에 따르면, 김수홍의 생애는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의 개인 처지와 형편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1단계(1601~1666년)에서 김수홍은 거의 굴곡 없이 순탄하게 살았다. 이는 당대의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진사의 지위를 얻었고, 이후로는 성균관에서 태학생으로 계속 공부를 이어갔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때에는 다른 태학생을 이끌고 인조에게 후금의 국서를 거절하고 사신을 참살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김수홍이 젊었을 때부터 유생 사이에서 명망과 영도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수홍은 1643년에 종9품 내시교관으로 임명되어 1665년에 정5품 공조정랑으로 제수되기까지 불과 22년 만에 몇 차례 경직과 외직을 거쳐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2단계(1666~1674년)에서 김수홍은 사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곤경에 처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같은 서인계에 속한 권신인 송시열과의 예송 논쟁으로 인해 파직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관에서도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김수홍에게 관직을 잃는 것 이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친우와의 관계마저 완전히 파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김수홍은 청나라를 결사반대하고 순국한 김상용의 순자로서 청나라의 강희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숭명반청의 정세가 고조된 조선 사회에서 매우 불충하고 불효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김수홍은 조야 사인들로부터 많은 경멸과 적대감을 받게 되었고, 1666년 2월부터 1674년 11월까지 약 9년 동안 그는 집에서 고독한 생활을 보냈다. 또한 김수홍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1670년과 1671년 경신대기근 때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릴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sup>3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시기에 김수홍이 두 가지 지도를 제작·간행했다는 사실이다.

3단계(1674~1681년)에서 김수홍은 1674년 말에 숙종의 즉위와 함께 벼슬 길에 다시 나갔다. 숙종은 갑인환국을 통해 남인 계열의 인사들을 조정에 많이 재기용하며 기존의 서인계 대신을 추방했다. 김수홍은 남인계의 대신이 아니었지만, 송시열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조당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일찍이 정4품의 장령으로 임명되었는데, 후자는 김수홍이 원래의 가지고 있던 관직보다 더욱 높은 것이었다. 이후로 숙종은 김수홍을 대단히 호감하여 대우했다. 김수홍은 정3품의 돈녕도정, 중2품의 호조참판, 정2품의 지사 등을 거쳐, 마침내 사망하기 직전 1년에 정2품의 지돈녕으로 제수되었다. 74세의 노인으로 다시 조정에 참여한 김수홍은 공명·이익과 관록을

---

37 『顯宗實錄』 7년(1666) 2월 21일, “諫院啓曰”.

많이 얻었지만, 실록에서는 서인계의 사관들에 의해 역사적 악명을 얻었다고 전해져왔다.

## 2. 김수홍의 학문 세계

김수홍의 학문적 저술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그의 학문 세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김수홍이 쓴 몇 편의 글과 문집류에 있는 김수홍과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그의 한문 세계의 일면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수홍은 결코 송시열 일파가 비하한 재능이 없는 소인(小人)이 아닌, 도리어 깊은 학문적 수준을 갖춘 학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는 당대의 다른 대학자와 밀접한 학술적 교류와 교류 관계를 맺었으며, 예학, 역사학, 지리학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김수홍은 일찍부터 조선 지식인으로부터 명성을 얻으며 일정한 학술적 영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김수홍의 학술 교류와 교우관계로부터 살펴보자. 명문가 출신의 김수홍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대학자와의 학술적 교류가 빈번했다. 그 중에서도 한문사대가 중의 하나로 꼽히는 대학자인 계곡(谿谷) 장유(張維)는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인물이다. 장유는 김수홍의 고모부로서 후자에게 하보(夏甫)라는 자를 지어주었다.<sup>38</sup> 장유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가까운 친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수홍이 장유에게서 학문적 지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장유 외에도 김수홍과 교류관계가 있는 다른 학자가 서신 왕래나 문집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서인과 관계를 끊은 1666년 이전에 김수홍은

---

38 張維, 『谿谷集』(4) 「金生壽弘字說」.

주로 신석번(申碩蕃), 이기발(李起浚) 등 서인계 인물과 교류했다. 하지만 도리어 1666년 이후에는 그가 허목(許穆), 정창주(鄭昌胄) 등 다른 당파의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쟁에 연루되어 많은 문인이 김수홍과의 교우 사실을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현재 파악된 그의 학문적 교류 상황을 통해 김수홍이 당시 가장 뛰어난 인재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둘째로, 김수홍에 대한 역사 평가에는 정반대의 의견이 있었지만, 편이한 두 가지 관점에 의하면 그의 월등한 학술적 능력과 학자 사이에서의 높은 영향력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다. 남인의 정치적 의도와 관점을 반영한 초판 『현종실록』에서는 김수홍에게 “젊어서부터 강직(剛直)한 것으로 이름이 나서 제류(濟流)들에게 크게 추허(推許)를 받았다. … 동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가운데서 발기(拔起)하여 스스로 험난함을 취택하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자품(資品)이 고아하고 수립(樹立)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sup>39</sup>라고 높은 평가를 했다.

그러나 서인의 시선에서 김수홍은 “이름난 가문의 자식으로 비록 사우(士友) 사이에서는 약간의 명성이 있었으나 문학에 부족하여 사람됨이 괴상하고 망령되어 그를 버리는 이가 많았다.”<sup>40</sup>라는 인신공격을 당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서인계의 김수홍에 대한 비난이 도리어 그의 높은 학문 능력과 영향력의 유력한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시열 일파의 중요 인물 송준길(宋浚吉)의 기록에 따르면 김수홍의 예송에 관한 책자가 영남 지역에서 널리 유포되었으며 그의 학설에 영향을 받은 영남 유생들이 송시열의 설을 공동으로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sup>41</sup> 이 기사를 통해 김수홍

39 『顯宗實錄』 7년(1666) 2월 21일, “諫院啓曰”.

40 『肅宗實錄』 7년(1681) 8월 23일, “知敦寧府事金壽弘卒”.

41 宋浚吉, 『同春堂集』(14) 「與金永叔」.

의 학술 수준과 영향력이 충분히 설명되었다. 또한, 송시열 본인이 김수홍의 견해를 매우 중요시하고, 후자가 예송에서 발휘한 독특한 역할을 감안하여 김수홍을 “이 일은 실로 윤휴(尹鑄)가 뿌리이다. 그러나 김수홍이 부추기지 않았다면 윤휴 또한 이처럼 낭당(郎當)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42</sup>라고 평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수홍을 사판에서 제명하는 처벌 자체가 그가 서인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인정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결국 김수홍의 학술 능력과 영향력은 서인의 당수인 송시열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을 만큼 컸다.

셋째로, 김수홍의 학문은 예학과 역사·지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하기 전에 김수홍은 조선시대 최고학부인 성균관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으며, 당시의 대학자와 광범위하게 교류하고 경외의 여러 관직을 거쳤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과 생활 환경을 고려해보면, 김수홍은 당시 일반적인 지식인보다 국내외 최신 서적과 지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수홍의 학문적인 저작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예송 때 지은 편지와 2개의 지도를 통해 그의 높은 예학, 역사학과 지리학 조예를 엿볼 수 있다.

우선, 김수홍은 예학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현종실록』에서는 송시열에게 보낸 예송에 관한 김수홍의 편지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sup>43</sup> 이 편지에서는 김수홍이 중국 문헌에 있는 적서와 상제와 관련된 자료를 널리 인용하여 그의 이론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 또한 김수홍의 예학에 관한 저술과 학술은 당시 지식인 사이에서 매우 유행했다. 이것은 그의 예학 조예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수홍은 조선과 중국의 역사·지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김수홍이 파직된 후에 집에서 스스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42 宋浚吉, 『同春堂別集』(19) 「遺事」.

43 『顯宗實錄』 7년(1666) 2월 21일, “諫院啓曰”.

《조선팔도고금총람도》라는 2장의 대형 지도를 제작·발행했다. 이들 지도에는 조선과 중국의 역사 전고, 지리 상황이 망라되어 있으며, 서구 근대 세계 지리 지식까지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는 김수홍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지도 제작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식견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17세기의 일반 조선 지식인과는 달리 김수홍은 탁월한 학술적 배경과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명말청초 중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서적과 지도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예학, 조선과 중국의 역사·지리, 그리고 지도 제작에 대한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높은 수준의 견해와 작품을 제출했다. 김수홍의 예학에 관한 저술과 두 장의 지도는 조선 사회에서 널리 유포되었다.

### 3. 김수홍의 지도 제작

먼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제작 시기부터 살펴보자. 초간본 지도에 있는 김수홍의 발문에 따르면, 그의 제작 시기는 “병오 중춘”으로, 즉 1666년(현종 7) 2월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은 매우 흥미롭다. 김수홍은 마침 이즈음에 서인에게서 탄핵당하고 사관에서 제명되는 처벌을 받았다. 서인은 김수홍이 청나라의 “강희 연호”를 썼다는 행동을 구실로 하여 그를 불충불효한 죄인으로 비난했다. 이로 인해 김수홍은 파면되고 실세가 되면서 세상의 인심은 냉담하고 각박해졌으며, 예전의 친우도 그를 피해 사라졌다. 특히,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한 시점은 곧 서인계와 김수홍 사이의 예송 논쟁과 교전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불충불효의 오명을 입은 김수홍이 자신의 명예를 변명하는 의도가 그의 지도 제작에 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한 목적과 동기는 다음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로, 김수홍은 자기의 불충불효한 오명을 씻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서 나타난 세계는 명나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직방세계이다. 지도의 독자는 명·청의 왕조 교체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김수홍의 지도에서는 중국의 ‘형승도’보다는 유가의 전통적 충효 관념과 더욱 가까웠으며, 중국 역대의 충신과 효자를 대량으로 수록했다. 김수홍은 ‘형승도’에 대한 재창조를 통해 자신이 유가의 충효 사상을 더욱 강조한 이미지를 부각했다.

둘째로, 김수홍은 자기의 성명을 지식인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에 지도 제작을 통해 학술적 성명을 얻는 것은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송시열의 문인 정경흠(鄭慶欽)은 지도와 지리지를 널리 연구하고 중국지도인 《황여고실(皇輿考實)》과 조선지도인 《동여고실(東輿考實)》을 제작했다.<sup>44</sup> 이러한 지도 제작으로 인해 송시열로부터 “규모(規模)가 매우 넓고 조관(條貫)이 엄밀(嚴密)하여 대체로 사가(史家)의 우익(羽翼)이 될 만하다.”라는 고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송시열 자기도 “회옹의 설을 의거하여 중국의 산세(山勢)를 아래와 같이 회출(繪出)하려 한다.”라는 소원이 있었지만, “병들어 정신이 혼미해진 탓으로 아직 못하고 있었다.”<sup>45</sup>고 한탄했다.

김수홍은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판본 형식으로 간행했다. 해당 지도의 규모는 ‘천하지도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고품질의 목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각공을 고용해야 했으며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다. 집에서 한거(閑居)했으며

44 정경흠의 지도 제작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할 수 있다. 정은주, 「17세기 후반 『동여비고』의 제작 배경과 내용적 특징: 관련 저본 및 모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 역사 지리』 제32권 제3호(2020), 83~108쪽.

45 宋時烈, 『宋子大全』(138) 「皇輿考實序」.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은 김수홍에게 이러한 지도 제작·간행 사업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조선팔도고금총람도》를 목판지도로 간행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김수홍은 지도 제작 사업을 통해 자기의 성명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전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제작된 ‘형승도’는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 출판물로 알려져 왔다. 중국의 ‘형승도’와 비교해보면, 김수홍의 지도가 같은 영리적 목적을 가졌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김수홍의 지도가 이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16세기 중후반의 조선은 명말청초의 중국과 달리, 상품경제와 시민사회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 김수홍 지도의 주요 독자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라 지식인이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는 ‘천하지도책’ 부류의 지도가 조선 민간에서 가장 유행한 것이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복제와 변형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지도가 ‘천하지도책’보다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형승도’의 제작자는 하층 지식인이었던 반면, 김수홍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아무리 겪더라도, 양반 김수홍이 지도를 간행·판매하여 삶을 영위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수홍의 지도는 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식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 VI. 맺음말

---

결론적으로 해당 지도의 등장은 16·17세기 동아시아 급변한 국제 질서와 제작자인 김수홍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첫째로, 16세기 중후반부터 조선과 중국 사이의 지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졌고, '형승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와 지리지가 조선에 전래되었다. 명말 지도·지리서의 상업적 출판의 발달과 조선 전파는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이다.

둘째로, 16세기 말에는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 지식이 동양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전통적 '형승도'도 그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변형되었다. 조선에 유입된 이들 '형승도'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시 직접적으로 참고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명·청의 왕조 교체와 서세동점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지식인의 세계관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천하지도책'과 같은 당대 지도의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수홍의 지도 제작은 승명반청의 사회 분위기와 서구 세계 지리 지식의 전래 등 시대상을 반영했다.

넷째로, 김수홍은 명문가 출신으로 높은 학문 수준과 지식인 사이에서의 영향력을 갖췄으며, 서인 송시열과의 예송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사관에서 제명되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김수홍은 이러한 오명을 벗고 자신의 명성을 홍보하기 위해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했다.

본고에서는 김수홍이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한 역사적 배경과 개인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지도의 판본 유전과 내용 구성 등을 살펴보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의 과제가 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東國輿地勝覽』.

南九萬, 『藥泉集』.

李晬光, 『芝峯類說』.

樸世采, 『南溪集』.

朴世采, 『範學全編』.

宋時烈, 『宋子大全』.

宋浚吉, 『同春堂別集』.

\_\_\_\_\_, 『同春堂集』.

張維, 『谿谷集』.

『東槎日記』, 『通文館志』.

《廣輿圖》, 《大明九邊萬國人跡路程全圖》, 《天下古今大總便覽圖》,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乾坤萬國全圖古今人物事跡》, 《天下九邊萬國人跡路程全圖》, 《華夷圖》, 《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姜紹書, 『韻石齋筆談』.

王圻·王思義, 『三才圖會』.

章潢, 『圖書編』.

### 2. 단행본

김양선, 『梅山國學散稿』, 송전대학교 박물관, 1972.

배우성,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파주: 돌베개, 2014.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옛지도 속  
의 하늘과 땅』,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파주: 창비, 2011.

이찬, 『韓國의 古地圖』, 파주: 범우사, 1991.

임종태,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화』,  
파주: 창비, 2012.

조셉 니덤(지), 이면우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서울: 까치글방, 2000.

한국도서관학연구회(편), 『韓國古地圖』.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7.

한영우·안휘준·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파주: 효형출판, 1999.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파주: 시간의물레, 2012.

酒井忠夫, 『中國日用類書史の研究』. 東京: 株式會社國書刊行會, 2011.

海野一隆, 『地圖文化史上の廣輿圖』. 東京: 東洋文庫, 2010.

吳蕙芳, 『萬寶全書: 明清時期的民間生活實錄』. 臺北: 稻鄉出版社, 2001.

王庸, 『中國地圖史綱』. 上海: 商務印書館, 1959.

王逸明, 『1609中國古地圖集: 「三才圖會·地理卷」導讀』.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10.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文化室(編), 『明代通俗日用類書集刊』.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Akin, Alexander, *East Asian Cartographic Print Culture: The Late Ming Publishing Boom and its Trans-Regional Connection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1.

Brook, Timothy, *Completing the Map of the World: Cartographic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Europe*. Taipei: Institute for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2020.

Ledyard, Gari, "Cartography in Korea." J. B. Harley and D. Woodward(ed.),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3. 논문

고인덕, 「조선시대에 있어서 도설백과사전 『三才圖會』의 수용」. 『중국어문학논집』 제77권, 2012, 607~625쪽.

김지선, 「17세기 중국의 과학과 『三才圖會』(I): 과학서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54권, 2016, 35~61쪽.

배우성, 「역사: 지도로 세상 읽기; 조선 선비 김수홍의 세상 보는 법」. 『선비문화』 제3권, 2004, 8~15쪽.

\_\_\_\_\_, 「조선후기의 異域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제36권, 2006, 145~177쪽.  
양위레이, 「金壽弘의 《天下古今大摠便覽圖》板本 研究」. 『한국고지도연구』 제3권 제1호, 2011, 5~17쪽.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對中國 認識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제5권, 2005, 289~332쪽.

\_\_\_\_\_,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중화적 세계인식」.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제1호, 2009, 5~18쪽.

정은주, 「17세기 후반 『동여비고』의 제작 배경과 내용적 특징: 관련 저본 및 모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 역사 지리』 제32권 제3호, 2020, 83~108쪽.

최수경, 「明代 後期 출판을 통한 지리학적 지식의 전파와 그 의미: 福建版 日用類書의 『地輿門』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69권, 2015, 269~311쪽.

허태구, 「임진왜란과 지도·지리지의 군사적 활용」. 『사학연구』 제113권, 2014, 167~198쪽.

龔纓曼, 「中國古代單幅“天下圖”演變譜系」. 『中國社會科學』 2023-2, 2023, 140~164쪽.

劉晶, 「萬曆援朝戰爭期間東北亞地區地理知識的獲取, 傳遞與呈現: 以『華夷沿海圖』爲中心的考察」. 『歷史地理研究』 2022-42(2), 2022, 89~102쪽.

劉亞惟, 「以夏變夷: 晚明“天下全圖”的域外知識來源與製圖觀」. 『嶺南學報』 2022-16, 2022, 253~291쪽.

孫靖國, 「台北故宮藏滿漢文『王泮題識『輿地圖』朝鮮摹繪增補本』考釋: 兼論清代地圖史的開端」. 2018年中國歷史地理學術研討會, 北京: 中國人民大學, 2018.

王勇, 「論明代日用類書中的指南性交通史料」. 『宜賓學院學報』 2018-8, 2018, 70~79쪽.

俞昕雯, 「『三才圖會·地理類』圖譜源流考」. 『中國典籍與文化』 2021-1, 2021, 41~52쪽.

成一農, 「“古今形勝之圖”系列地圖研究: 從知識史角度的解讀」. 『形象史學』 2020-1 2020, 256~284쪽.

Mackay, A. L., “Kim Su-Hong and the Korean Cartographic Tradition.” *Imago Mundi*, Vol. 27, No. 1, 1975, pp. 27~38.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중후반 조선 지식인 김수홍이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한 역사적 배경과 개인적 동기를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도의 등장은 16·17세기 동아시아에서 급변한 국제 질서와 제작자인 김수홍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첫째로, 16세기 중후반부터 조선과 중국 사이의 지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졌고, ‘형승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와 지리지가 조선에 전래되었다. 이는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둘째로, 16세기 말에는 근대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 지식이 동양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전통적 ‘형승도’도 그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변형되었다. 조선에 유입된 이들 ‘형승도’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시 직접적으로 참고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명·청 왕조 교체와 서세동점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지식인의 세계관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천하지도책’과 같은 당대 지도의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수홍의 지도 제작은 승명반청의 사회 분위기와 서구 세계 지리 지식의 전래 등 시대상을 반영했다.

넷째로, 김수홍은 명문가 출신으로 높은 학문 수준과 지식인 사이에서의 영향력을 갖췄으며, 서인 송시열과의 예송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사판에서 제명되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김수홍은 이러한 오명을 벗고 자신의 명성을 홍보하기 위해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했다.

투고일 2023. 5. 26.

심사일 2023. 7. 21.

게재 확정일 2023. 8. 7.

주제어(keywords) 김수홍(Kim Su-hong), 천하고금대총편람도(*Cheonha gogeum daecheong pyeollamdo*, Map of the Outline of the Past and Present World), 제작배경(Background to the production), 형승도(*Hyeongseungdo*)

## Abstract

### Background to the Production of Kim Su-hong's *Cheonha gogeum daechong pyeollamdo* (Map of the Outline of the Past and Present World)

Li, Hao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ersonal motivations behind the creation of the map *Cheonha gogeum daechong pyeollamdo* (Map of the Outline of the Past and Present World) by the Korean intellectual Kim Su-hong in the late 17th century. The emergence of this map is closely related to the dynamic shifts 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s well as the eventful life of its creator, Kim Su-hong.

First, starting from the late 16th century, the exchange of maps between Joseon and China became more active, leading to the transmission of numerous maps and geography books, including *Hyeongseungdo*, to Joseon. This served as a crucial prerequisite for Kim Su-hong to create his own map.

Second, by the end of the 16th century, as modern Western-style world maps and geographical knowledge began to spread to the East, even China's traditional *Hyeongseungdo* underwent significant transformations under Western influence. The *Hyeongseungdo* maps introduced to Joseon served as direct reference materials for the creation of *Cheonha gogeum daechong pyeollamdo*.

Third, the dynastic changes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s well as the Western Learning Spreading to the East against the backdrop of Western expansion,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Korean intellectuals' worldview and significantly impacted the production of maps, including the *Cheonhajidocheak*. Kim Su-hong, influenced by a prevailing worldview that emphasized For-Ming and Anti-Qing, incorporated these ideas into the creation of his map.

Fourth, Kim Su-hong, a scholar with a prestigious background, held a prominent position of scholarship and influence among Korean intellectuals. However, he faced dismissal from office and received significant criticism due to the controversy with Song Si-yeol, a Western scholar. Kim Su-hong created the *Cheonha gogeum daechong pyeollamdo* to counteract these criticisms and enhance his own scholarly reputation.